



우리 명씨의 시조, 명옥진 황제



명씨대종회 명예회장 명 노 승

1. 서

한국 명씨의 시조 명옥진 황제의 원래 성에 관하여는 명씨라는 설과 민(旻)씨라는 설이 있다.

대종회가 중경과 처음 교류를 할 당시에는 관계 문헌을 많이 볼 수 없어 중경에서 준 “명옥진과 그 묘장연구”와 중경시 간부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명옥진이 민씨에서 명씨로 성을 바꾸었다는 주장을 믿어 왔다. 그러나 그 후 원래 성이 명씨였다는 많은 다른 기록들을 접하게 되어 이 기록들을 정리, 검토하여 한국명씨의 근원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2. 중국 명씨의 근원

중국 명씨의 근원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다음 4가지이다.

가. 희(姬)성에서 발생한 명씨

후직(희성)에서 배출하여 그 후예가 우중(중옹의 별칭)이었고, 그 후에 중에 백리해가 있었고, 그의 아들 맹명시(孟明視, 明은 자이고, 視는 이름)가 있었는데 그 자손이 맹명을 성으로 하다가 그 후 명씨로 하였다. 그 후손 중에 오대 후당 시기에 명면(明冕)이 호북성으로 이주하여 호북성에 거주하는 명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나. 초명(譙)에서 발생한 명씨

수인(隗人)씨가 부족 수령일 때 수인의 4명 보좌 중의 1명이 초명의 후손이었는데 선조의 이름을 성으로 하여 명유(明由)라 하였고 그 후손이 대대로 명씨가 되었다.

다. 선비족에서 발생한 명씨

북위시기 선비족 중에 두권(斗眷)씨가 있었는데 위나라 효문제가 수도를 낙양으로 옮길 때 명씨로 바꿨다.

라. 민(旻)씨에서 발생한 명씨

원말 홍건군 영도 민옥진은 원래 민씨였는데 명교를 신봉하여 명씨로 바꿨다.

3. 명옥진의 성씨에 관한 과거의 기록

가. 민씨에서 명씨로 바꿨다는 기록

1) 엽자기(1327-1390)의 초목자

“旻眼子... 小旻王同其母俱降...”(민씨 성을 가진 눈을 다친사람... 작은 민왕과 그 어머니는 같이 투항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어 명옥진은 민씨이고, 아들을 작은 민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 황표(1368)의 평한록

“蜀有明氏 一曰旻氏 諱玉珍... 元將哈林都戰湖中 飛矢中其右目 人呼爲旻瞎者”(촉지방에 명씨가 있었다. 민씨라고도 했다. 이름은 옥진... 원나라 장수 한림도와 전쟁 중 오른 쪽 눈에 화살을 맞아 사람들은 민할자라고 불렀다)

3) 사계좌(1601-1676)의 좌유록

“明玉珍 一名旻珍 避諱更玉珍”(명옥진 일명 민진, 이름을 옥진으로 바꿨다)

4) 오함(1965)의 주원장전

“명옥진은 처음 명씨가 아니었고 성을 바꾸어서 명씨가 되었다”

5) 백수이(현대인)의 중국통사

“本姓旻 改姓明”(본성은 민, 명으로 성을 바꿨다)

나. 원래 명씨라는 기록

1) 현궁지비

“太祖隨州隨縣緋丘人 姓明氏 御諱玉珍”(태조 수주 수현 사람, 성 명씨, 이름 옥진)

2) 양학가(명옥진과 동시대)의 명씨실록

“夏國主姓明氏諱玉珍”(하나라왕, 성 명씨, 이름 옥진)

3) 동승서(1566)의 평한록, 면양주지, 송렴(1369)의 원사, 이경룡(1399-1411)의 명실록, 장정옥(1672-1755)의 명사, 명옥진전, 안목(1539)의 수지, 가소민(1920)의 신원사 등 많은 명옥진 관련 기록에 성을 바꾼 기록이 없다.

4) 한국 명씨 족보

후직에서 배출되어 중옹-백리해-맹명으로 이어지다가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여 명씨가 되었고 명옥진은 그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기 발표한 “한국 명씨족보에 기재된 명씨의 근원” 참조)

5) 호북성 명씨 주장

호북성 명씨들은 명씨역사문화연구회를 구성하여 한국 명씨들이 명옥진 탄생지를 참배할 때 교류하고 있는데 동 문화연구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호북성 명씨의 선조는 백리해-맹명을 시조로 하고 있고 그 후손에 명옥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민씨설에 대한 비판

가. 호광지역(호북성과 호남성)의 역사자료에 당송원나라 때 민씨가 호광지역에서 활동한 기록이 없다. 민씨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북송 태평환우기중 하북 중산군(현 하북 정현)에서 사는 희소한 성이었다.

나. 역대 성씨보의 기재에 민씨가 호광지방에 분포된 기록이 없다.

다. 성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작자의 기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1). 엽자기는 명옥진을 면양 사람이라 하고, 신하 대수를 대비라하고, 명승의 모친은 명나라 궁에 불러 들어가 왕비가 되었고, 명옥진은 만승이 살해한 것이라고 기록하는 등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것은 엽자기가 명옥진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접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원나라의 통치하에 명옥진은 처음에 산채에서 봉기하였기 때문에 마을에 남아 있던 친척들은 원나라 군의 핍박을 받게 되어 연좌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명옥진은 원

래 민씨라고 주장하여 이 소문이 퍼진 것을 엽자기가 듣고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2). 황표는 “민씨라고도 했다”고 기록하여 원래 성이 민씨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민할자라고 불렀다”는 부분의 민할자의 민(旻)의 의미는 민씨라는 의미가 아니고 슬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 사계좌는 일명 민진이었다고 기록했지, 정확히 옥진의 성이 민씨라고는 기록하지 않았다.

4). 오함, 백수이는 최근 사람들로 위 세 사람의 기록을 보고 민씨설을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라. 민씨설은 명옥진의 예릉에서 현궁지비가 발견되기 전의 추측에 의한 주장이었는데 현궁지비에 성이 명씨였다고 명확히 기록되었으므로 이제는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성을 바꾸었으면 현궁지비에 표시하였을 것이고 현궁지비에는 모부터 고조모까지의 성이 나오는데 부부터 고조부까지 이름만 나오고 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조의 성도 명씨임이 분명하다.

마. 한국 명씨 족보에 후직-중옹-백리해-맹명-명으로 이어지는 명옥진 선대의 역사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중국 호북성 명씨의 역사와 일치한다.

5. 명씨설에 대한 비판

예릉이 발견된 직후 발간된 “명옥진과 그 묘장연구”에 동기상이 위 엽자기, 황표, 사계좌의 기록을 근거로 명옥진이 명교를 믿어 민씨에서 명씨로 성을 바꿨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동안 현궁지비에 대한 해석이 재정립되고, 민씨설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이 가해지자 지금은 명씨설에 대하여 비판의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중경의 간부들도 원래 명씨였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6. 결어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한국 명씨는 후직(희성)-중옹-백리해-맹명-명으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씨이다.

한국 명씨의 본래 성이 민씨였다는 주장은 지금도 중국의 일부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한국 명씨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족보의 내용이 이제 자세히 밝혀진 이상 획기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선조들이 확립해 놓은 명씨의 역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황흥방 선생의 소설 “명옥진”에는 원래 시조께서 민씨였는데 명씨로 바꾸었다는 설에 입각하여 소설을 썼으나 중국에서 황 작가가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명씨 족보와 불일치하여 소설 번역시 황 작가의 견해에 따르지 않는다는 주석을 붙이고 성을 바꾸는 장면은 생략한 바 있다(소설 3쪽 참조).

2013 명옥진 시조황제 추모방문단 - 방중결과 보고기록

2013년 올해는 우리 명씨의 시조, 중국 대하국의 명옥진 황제께서 돌아가신지 제647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조 할아버지께서는 1329년 9월 9일 탄생하셔서 1366년 2월 5일(음) 세상을 떠나셨다.

한국의 우리 명씨들은 해마다 시조, 명옥진 흙문소무 황제가 영면하고 계신 예릉(중국 중경시 강북구 상항가 소재)을 찾아가 추모제를 올리고, 또한 시조 황제가

시조 황제릉 전시관 개관

명씨대종회 사무국장 명노준



3월 15일, 인천과 김해공항을 출발한 우리 '명옥진 시조황제 추모방문단'이 북경공항에 도착한 뒤 국내선으로 바뀌 타고 중경으로 이동하여 1박을 한 다음 날인 3월 16일 우리일행은 이른 아침부터 예릉에서 있을 '추모제' 준비로 바빴다. 추모제에 앞서서 '예릉전시관 개관식'이 열린다.

개관식 행사장은 예릉의 정문 앞마당으로, 정문 우측에 단상이 설치되었다.

예릉전시관 개관식은 중경시 행군 문화국장, 예릉관리 주무청인 강북구청 고홍파 상무위원 겸 부구청장, 그 밖의 중국 측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명씨대종회 명동성 부회장을 비롯한 종친 40명, 그리고 구경을 하러 나온 많은 중경시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행사는 전시관개관 선포와 함께 그동안의 개관준비를 위한 공사과정과 경위 설명을 시작으로, 예릉관리청인 강북구청의 고홍파 상무위원 겸 부구청장의 축사, 명씨대종회 명동성 부회장 겸 대하장학회 이사장의 감사 인사, 예릉 전시관개관 기념 현판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릉전시관 내부를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2백여 명의 인원이 운집한 가운데 시종일관 가볍게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열

린 전시관개관식 행사의 절정은 현판식이었다.

중경시 행군 문화국장, 강북구 고홍파 부구청장, 대종회 명동성 부회장, 명영남 고문 등이 길게 드리워진 붉은 천을 당기자 폭죽이 터지고 꽃가루가 날리면서 '명옥진황제릉'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참석자 가운데에는 황제 탄생지인 호북성 수주시 수현의 장진 구청장 등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전시관 개관을 축하해주었다.

전시관 정문을 지나면 전시관 전실이 나오는 데, 이곳에는 전시관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전실을 지나 내부의 중앙에 들어서면 명옥진 황제의 세력이 미치던 대하국 영토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입체지도를 설치해 놓았다.

지금으로부터 650년 전인 1363년, 시조황제께서 백성들을 위해 어지러웠던 나라를 평정하고 세웠던 대하국, 즉 동쪽으로는 호북성 의창, 서쪽으로는 운남성 곤명, 남쪽으로는 귀주성 준의, 그리고 북쪽으로는 섬서성 한중에 이르는 대하국의 땅이 발끝에 펼쳐져 있다. 그 바로 위의 천정에서는 매우 큰 타원형의 조명이 중국을 천하통일하기 위해 동서남북

을 말로 달리며 큰 활약을 하셨으나, 끝내 그 큰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실 당시의 대하국 영토 곳곳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 좌우 벽면에는 대하국 관련 각종 역사 자료와 사진, 그리고 한국의 명씨에 관한 자료들이 설명을 곁들여 사진과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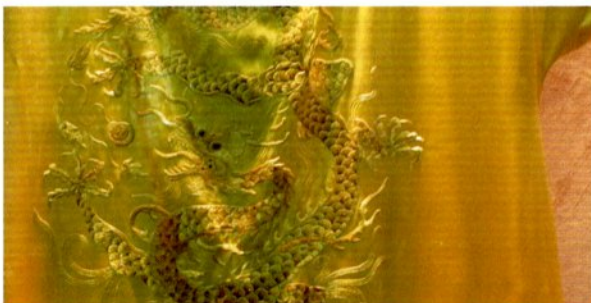
전시관의 맨 안쪽은 시조황제의 시신을 안치한 곳으로, 황제를 상징하는 다섯 발가락을 가진 용으로 장식된 황금빛 조명 등이 황제의 시신을 안치한 석실 한가운데의 관을 비추었다. 이 전시실에는 당시 황제의 룡에서 나온 금잔과 은기, 화폐, 도장, 그리고 황제께서 입으셨던 여러 종류의 곤룡포 등 당시 룡에서 출토된 유물

들을 전시하고 있다.

650년 전의 역사 속 대하국 명옥진 황제릉 전시관을 돌아 나오면 잘 조성된 중앙공원이다. 이 중앙공원이 예릉을 품고 있다.

예릉은 가릉강과 양자강이 합류하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관 공사비는 6백만 위안화(약 12억 원)가 들었다. 중경시는 중국 정부 문화재 지정을 요청 중이다.

예릉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준 중국정부에 감사드린다. 우리 후손들도 시조 할아버지에 대한 숭조의 마음을 더욱 높이며, 예릉이 잘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탄생하신 곳의 탄생지 기념관(중국 호북성 수현 유림진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를 해왔다.

2012년 2월 29일에는 중국 호북성 수현 유림진 현지에서 탄생지 기념관 개관행사가 성대하게 열렸고, 올해 2013년 3월 16일에는 중경시 강북구 상항가 중앙공원 내에 있는 시조 황제의릉인 '예릉전시관 개관식'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3월 15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각각 출발한 40명으로 구성된 '명옥진 시조 황제 추모방문단' (단장 : 명동성 부회장 겸, 대하장학회 이사장)이 3월 20일 전 일정을 마치고 인천과 김해공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시조 황제 추모제

예릉 추모제 준비는 해마다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한다. 중국과 문화가 다른 한국식으로 추모제를 봉행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시조 황제 추모제는 예릉 전시관 개관식을 마친 후, 새롭게 단장한 예릉 마당에 모신 황제의 동상 앞 제단에서 올렸다. 동상의 뒤로는 학, 구름 등 상서로운 문양들을 조각해서 금칠을 한 병풍 모양의 검은 돌로 된 장식벽이 둘러쳐져 있고, 검은 오석으로 만든 동상 앞의 커다란 제단이 시조황제의 품격을 잘 어울려 보였다.

3월 16일, 이번 추모제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준비해간 제수를 진설하기 위해

서 아침 일찍 몇몇 종친이 먼저 예릉을 향했다. 이번 진설은 고문 을식, 공동제례위원장 석호, 상임 부회장 광길, 상임 이사 태식, 노준, 광주, 그리고 이사 노석이 맡았다.

추모 제례는 대종회 명노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초헌관은 대종회 명동성 부회장, 아헌관은 명홍조 고문, 종헌관은 명순식 상임 이사, 명효식 이사(청양 회장), 그리고 축관은 명을식 고문, 유식 첨작은 명동성 부회장이 맡았다.

추모제에 참석한 종친 모두가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초헌관이 강신의 예를 올린 후 4배의 예를 올렸고, 다시 초헌관이

분향 헌작하고 참배자 모두가 엎드린 채 명을식 고문이 독축을 마친 후 전 종친 모두가 다시 4배의 예를 올렸다. 이어 아헌, 종헌, 유식 첨작 음복 순으로 추모제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추모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예릉 전시관 개관식이 열리고 나서 올리게 되어 개관식을 취재하러 온 여러 매체사 기자들과 강북구청 공무원과 관계자, 그리고 구경나온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인상적인 추모제였다. 중국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제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례를 마치고 제례를 지켜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제례음식에 모두가 흐

뒀다.

명씨대중회 고문 겸, 경모사관리위원장 명 봉 식



황제 탄생지기념관 방문

3월 16일 중경에 있는 예릉에서 추모제를 올리고 난 당일, 우리 '명옥진 시조황제 추모방문단' 일행은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1시간 30분여를 걸려 무한공항에 도착하여 무한의 한 호텔에서 숙박을 했다. 다음날 아침 8시 버스로 고속도로를 1시간 달려서 명옥진 시조황제께서 태어나신 수주시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수현구청에서 나온 외빈접대를 맡은 공무원과 전임 정위국 기념관장이 나와서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았다. 그분들의 안내로 다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명옥진 시조황제가 태어나신 곳에 세워진 기념관에 도착하였다.

중국 호북성 수주시 수현 유림진 쌍림촌에 위치한 명옥진 황제 탄생지 기념관.

지난 2012년 2월 29일 공사를 마치고 수백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



데 수주시장의 개관식선포로 성대한 개관식을 열었던 이 탄생지 기념관은 규모가 커서 장엄해 보이기가까지 했다.

노후된 기념관을 철거하고 우리나라 돈 약 22억 원을 들여 신축한 탄생지 기념관은 진입로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맞고 있는 기념관 모습은 마치 궁궐만큼이나 멋진 위용을 자랑했다.

우리 일행은 우선 기념관 안에 모셔진 황제의 대형 영정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서 방문단장인 대종회 명동성 부회장이 분향한 후 4배의 예를 올렸다. 향 내음이 시조황제를 기리기 위해 모여선 종친들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어서 기념관 내부를 차근차근 돌아보았다. 기념관 내부는 시조황제와 제2세 조이신 명승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거실과 침실, 여러 가지 집기, 각종 공적 및 역사적 기록, 예릉 사진, 한국의 후손들인 명씨대종회 관련 사진 등 많은 전시물이

명씨대종회 상임이사 명태식



가득하다. 2세조 명승 할아버지 전시실은 우리 대하장학회

가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이번에 새로 꾸몄다. 기념관 우측 마당에 서있는 시조황제의 기마상은 한국의 명씨 후손들이 모금한 돈 4천 2백만 원을 지원하여 만든 것으로 금방이라도 흠뻑지를 일으키며 땅을 박차고 달려나갈 듯하다. 시조황제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방문일정에는 시조황제께서 병사들과 말을 훈련시켰던 기념관 우측에 있는 청림산을 오를 계획이었으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취소되어 아쉬움을 갖게 했다.

중국 명씨들과의 만남

매년 황제 탄생지 기념관 참배 때마다 호북성 수주시에 살고 있는 10여명의 명씨들이 한국의 명씨와 같이 참배를 해왔다.

올해는 호북성의 명씨연구위원장 명도권, 부위원장 명려 등 7명이 참석하였다. 당초 계획에는 우리측 대표 10여명과 중국 명씨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나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현 구청측이 제한한 계획과 간담회 약속이 중복되는 관계로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하여 서로가 아쉬워해야 했다.

다만 잠시 동안의 짧은 만남에서 중국 명씨들과 나눈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호북성 '양신' 지역에는 4만여 명의 명씨가 살고 있고, 호북성 전체에는 30만 명의 명씨가 살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살고 있는 명씨들은 시조 황제 이후의 명씨 연구는 물론 황제 이전의 명씨에 대해서도 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가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명옥진 시조황제 추모방문단'은 중국의 명씨들에게 서울에서 준비해간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명씨 연구서 2권과 명씨 종친 월간지, 그리고 그 외의 몇 가지 자료를 전달 받았다.

3월 20일 귀국을 위해 무안에서 항공편으로 다시 북경으로 옮겨온 3월 19일 우리 일행은 천안문광장, 자금성, 명13릉,

이화원, 그리고 늦은 3월의 눈 내리는 만리장성 관광을 즐겼다.

이날 우리 일행은 탄생지 기념관에서 만난 명려 부위원장의 숙부인 호북성 출신의 명유신 회장이 경영하는 북경 변화가의 룡바오 레스토랑 만찬에 초대되어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베이징 룡바오그룹 회장인 그는 중국의 명씨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과 명씨모임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일행을 가족처럼 환대했다.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도 우리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 동석시켜 답소를 나누게 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그와 자주 만나는 명병주, 명병씨 등 몇몇 중국의 명씨들이 동석하였다.

명유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국까지 와서 예릉 추모제를 올리고, 탄생지의 황제 기념관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며, 중국의 명씨들과 한국의 명씨들은 같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이고 형제이므로, 앞으로 더욱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은 중경의 예릉도 다녀왔으며,

예릉 관리청 관계공무원과도 보다 나은 예릉관리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명옥진 황제 이전의 명씨 역사에 대한 연구서적이 곧 출간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명옥진 시조황제 추모방문단' 명동성 단장은 우리 일행에게 만찬을 베풀어주고, 환대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한국의 명씨와 북경의 명씨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귀국 후 대종회와 협의를 거쳐 중국의 명씨 일행을 한국에 초청할 의사가 있다는 매듭 말로 만남의 자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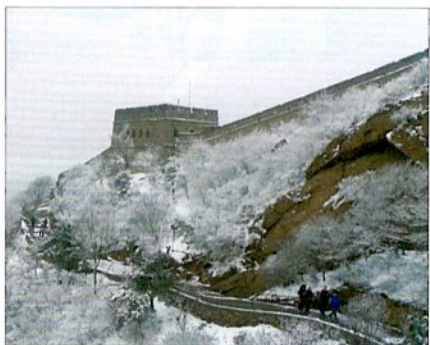
다음 날인 3월 20일 우리 일행은 처음 한국을 떠난 인천과 김해 공항을 향해 출발, 5박 6일 전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해 개관한 황제 탄생지 기념관, 그리고 올해 개관한 예릉 전시관의 비치 자

료와 기록을 돌아보며 우리는 시조황제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 큰 꿈, 그리고 꿈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신 시조 할아버지의 큰 뜻과 기상을 더듬어 볼 수 있었다.

모든 종친이 황제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길 기원해본다.

명씨대종회 상임이사 겸,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순식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다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발령장 하나 들고 팔도를 유랑하던 삶을 살아오던 저로서는 검사라는 특이한 직업 때문에 참으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경우는 더욱 드물며 그런 분을 주변에 두는 것은 인생에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주위를 살피보기 힘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하여는 가혹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위진 대종회장님께서 금년 2월 말에 20억원을 추가로 대하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주셨고, 파주사당 옆에는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대종회에 기증해주시기로 하여 7월에는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년 3월 16일 중국 중경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명옥진 황제의 예릉에서는 중국정부 주관으로 우리 명씨 종친들이 참석하여 명옥진 황제 전시관 개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 관리의 설명으로는 예릉을 중앙정부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예릉 주변이 새로 개발되어 중경시에서 최고급 주거지와 연구단지로 변한 그곳에 수천 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시조의 릉을 보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고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중경정부 관리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지금까지 애써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매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배해주신 많은 종친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씨대종회에서 처음 참배를 시작했을 때부터 관여하여온 전임 중경시 강북구

국장출신 이조옥씨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예릉 참배가 명씨종친회의 25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종친분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방문할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 회에 걸쳐 관계공무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최선을 다해 극진하게 대접해주신 명위진 회장님의 노력과 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종회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맙고도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명위진 회장님으로부터 대하장학회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거액의 장학금을 출연해주신 것을 보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대하장학회가 후학들을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장학회의 존재를 종친들에게 잘 알려져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엄선하고, 집중 육성하여 명위진 회장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명실상부한 장학회가 되도록 하겠

습니다.

장학생들끼리는 서로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종친회의 다른 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연스럽게 종친회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와 장학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장학금 출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위진 회장님이 쌓아 주신 터전을 발판으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종친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굳건하고 발전된 대종회와 장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장학기금 확대출연과 파주사당 다목적 신축건물이 많은 종친분들에게 대종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대하장학회 이사장 명 동 성

명위진 회장께서 기증기로 한 다목적 신축건물(재실포함) -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다

명씨대종회 상임부회장 겸, 대종보편집인 명 광 길



2013년 4월 3일, 파주 경모사에서는 대종회 사당관리위원장, 고문, 임원,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 현장직원들이 참석하여 다목적 신축건물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경모사 경내 신축건물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은 공사 시작을 알리는 것과 함께 새로운 건축물 탄생을 기원하는 고사를 올렸다.

대종회 명위진 회장께서 신축하여 기증기로 한 재실을 포함한 이 다목적 신축건물은 착공식 이후 곧바로 토목 등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7월 13일(토)에는 준공식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명씨대종회 타임

캡슐' 매립 등 축하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이번 준공식에는 2013년도 대종회 정기총회가 함께 열린다.

이 준공기념행사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종친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명찰 및 식사 행사준비 관계로 대종회 사무국에 사전 참가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명씨대종회 파주 사당은 시조의 영정을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본당과 별채(재실)로 꾸며져 있으나, 본당이 몇 차례 보수공사를 거쳐 관리되어왔던 것과 달리 별채는 사당 관리인이 거주하는 등의 문제로 보수공사를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별채에 대한 대대적 보수작업이나 대체건물 신축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으나 기금모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지난 해 명위진 대종회 회장께서는 재실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용도 건물을 현대식으로 본인이 지어서 종친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대종회 고문들과 임원들에게 피력하였고, 이 뜻을 대종회 고문과 임원들이 받아들였다. 이후 수차례 열린 고문단 회의와 임원회의를 거쳐 신축을 결정, 올해 2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월 11일 파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연건평 150여 평(3층)의 재실 신축공사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약100여일이 소요될 신축건물 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일체의 작업을 '디자인프로세스(대표 김은영)'가 맡아 책임공사키로 하였다.

공정은 4월에서 5월 초순까지 터파기, 토목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 등 기초공사, 5월 말까지는 골조 및 내외벽 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6월말까지 마감 등 완

공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재실 각층별 용도는 1층은 경모사 관리를 위한 주택기능(방2,거실1, 주방,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으로서 비가오더라도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2층(68평)은 전시실(26평)과 사무실(20평), 창고, 화장실 등으로 꾸며지는데, 전시실은 시조 할아버지에 관한 사료와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여러 가지 사료 등을 전시하게 된다. 사무실은 대종회사무실, 또는 산하단체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3층은 약 15평 규모의 단독주택(콘도/펜션)형의 휴식공간으로 꾸며지게 됨으로써 종친들이 가족단위로 또는 소모임을 위한 단체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6평 규모의 회의실, 강의실, 또는 수확실로 쓸 수 있는 넓은 공간도 만들어지므로, 공간 활용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 완공과 함께 각 공간에 들어갈 각종 가구, 집기, 비품, 그림, 액자, 주방기구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현물이나 기금 기부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종회에서는 뜻이 있는 여러 종친들의 협조와 참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며, 건물신축에 관한 좋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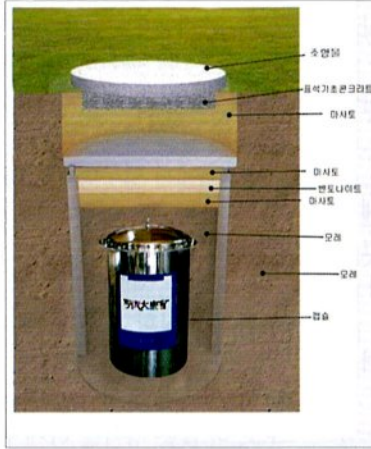
기부문의

- 대종회 명노준 사무국장 (전화 : 010-2555-1760)
- 명광길 상임부회장 (전화 : 010-6220-8065)

‘명씨타임캡슐’ 수장물품 목록수집 등 준비작업에 박차

‘명씨타임캡슐’ 매설이 절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준비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 신축건물 준공에 맞춰 매설될 예정인 타임캡슐은 수장품 선정 및 자료수집, 수장품 정리, 타임캡슐제작, 수장품 봉인, 보존처리, 매설식, 그리고 표지조형물 설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 측과 자료준비 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해온 명광주 대종회 홍보위원장은 대종회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타임캡슐 매설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매설준비를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파주사당 경내에서는 타임캡슐이 들어갈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타임캡슐 매설구조 그림참조). 타임캡슐에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는 대종회 홈페이지 또는 대종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신축건물 경관조성을 위한 ‘기념나무심기 행사’ 참여신청 안내

다목적 신축건물 준공에 따른 ‘기념나무심기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종친들은 대종회 사무국에 참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종친, 또는 가족의 이름을 스테인리스 패찰에 새겨서 나무와 함께 영구 관리합니다.

사정이 있으신 분은 식목기금을 출연하시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나무심기 행사일은 추후 명씨대종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립니다.

● 문의 : 대종회 사무국 준공기념식 행사 진행본부

족보(族譜)를 알아야 조상을 바르게 알 수 있다



명씨대종회 공동제례위원장 명 석 호

족보의 의미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다문화시대가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 숭배나 뿌리 의식을 희석시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호적법을 폐지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법률을 시행,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과 본관도 따를 수 있게 함으로써 부계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변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닥쳐오더라도 자신의 근원과 근분마저 잊어서는 안 될 일 이므로 한 씨족의 역사인 족보에 대한 의의와 유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의 전통적 족보는 일족의 혈통과 가계를 알고 동족의 단결과 보다 나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값진 씨족의 보감(寶鑑)으로 인간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여겼으며, 조상님을 받드는 심정으로 모셨다. 족보는 한 성씨의 시조로부터 역대 조상의 혈연관계를 부계 중심으로 계보와 문벌, 그리고 선조들의 행적, 생(生)과 졸(卒), 묘비명 등을 정리 기록한 씨족의 역사이다. 국가의 국사(國史)와 같이 혈연 중심의 씨족집단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활동한 자취를 기록한 것이 족보이다.

우리는 흔히 족보를 동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서양에도 족보가 있다. 성경 창세기에도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아담이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고 셋은 에

노스를, 에노스는 제난을, 제난은 마할랄렐을 낳았다고 표기한 것만을 보더라도 뿌리 기록의 역사가 유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왕실이나 일부 귀족의 족보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족보와 비교하면 그 내용의 정밀성이나 규모가 떨어져서 대부분은 자기 집안의 가계를 간략하게 기록한 우리나라의 가첩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족보의 유래

동양의 족보는 중국 육조시대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한(漢)나라 때 고관대작을 배출하는 씨족들이 늘면서 문벌과 가풍을 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벼슬에 오르거나 승진, 그리고 혼인하는 데까지

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족보가 중요시 되었다.

우리나라 족보는 고려 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고려 중엽 이후인 고려 18대 의종(1146~1170)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신록과 임경숙의 선원록이 그 시작으로 여기에는 왕실의 친인척인 종자 종녀(宗子 宗女)까지 기재하는 등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동족간의 족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사 열전에 부자(父子)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각 씨족들이 족보를 만드는 근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혈족 전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보(世譜)가 등장한 것은 1400년대로 족보의 시초는 안동권씨 성화보와 문화류씨 가정보로 전해지고 있다.

성화보는 명나라 현종 연호인 성화12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여 성화보라 부른다. 1562년 조선조 명종 때 간행된 문화류씨 가정보는 현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문화류씨 가정보는 혈족 전부를 망라하는 등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외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 씨족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조선조 성종 이전에는 체계를 갖춘 족보가 없었지만 1454년 남양홍씨, 1476년 전의이씨, 창령성씨가 족보를 발행하였다.

유력한 씨족만이 가졌던 족보가 일반화된 것은 선조(1567~1607) 때이다. 숙종(1661~1720) 이후 당쟁 가열과 문벌 간의 대결이 심해지면서 자기 일족의 유대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각 문중에서 족보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엄격했던 종래의 신분제도가 해이해짐으로써 족보 남발을 촉진, 양반사칭 등 신분세탁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족보의 본래 목적은 혈통을 존중하고 동족 간 유대를 돈독히 하려는 것으로, 인세로 발행하기 이전에는 등사본,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으로 된 것도 있다.

우리 명가(明家)의 족보는 1701년 신사보(辛巳譜), 1759년 기묘보(己卯譜), 1776년 병신보(丙申譜), 1812년 임신보(壬申譜), 1892년 임진보(壬辰譜), 1925년 을축보(乙丑譜), 1957년 정유보(丁酉譜), 1986년 병인보(丙寅譜), 2003년 계미보(癸未譜)가 발행되어 현존하고 있다.

족보의 종류

1)가승(家乘)

자기를 중심으로 편찬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직계 존속과 비속까지 각각 휘자(諱字) 및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의 기본자료이다.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작성하기도 한다.

2)파보(派譜)

파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파속만의 각 휘자와 사적을 수록한 족보이다.

3)세보(世譜)

세보는 두 파 이상의 파족(派族)이 동보(同譜)로 제작되었거나 어느 한 파족만이 수록되었을 때 파보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해서 세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4)계보(系譜)

계보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휘자만을 계통적으로 표시 연결한 도표이다. 가족 전체가 수록되거나 한 부분만이 작성되어도 계보라고 한다.

5)족보(族譜)

족보는 관향(貫鄉)의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가문의 역사를 나타내고, 가문 씨족의 연결을 실증한 것이다.

6)대동보(大同譜)

대동보는 같은 비조(鼻祖=始祖) 밑의 중시조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의 동보로 종합 편찬된 보첩이며, 본관은 다르되 비조가 같은 여러 종족(宗族)이 통합해서 족보를 작성했을 때 이를 대동보라 한다.

7)가보, 또는 가첩(家譜, 家牒)

가보나 가첩이란 편찬된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서 자기 중심 위주로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보첩이다.

보첩에 쓰이는 용어(譜牒 術語)

1)시조(始祖)

시조는 최초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이다.

2)비조(鼻祖)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조 조상 중 가장 높은 할아버지를 말하며, 시조 이전에 선계(先系)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를 비조라고도 할 수 있다.

3)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말한다.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推尊)할 수 있으나, 종중의 공론에 따라 인정되므로 자파(自派) 단독으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4)선계(先系)

선계라 함은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의미한다.

5)세계(世系)

세계라 함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계통의 순서를 의미한다.

6)세와 대(世와 代)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연결되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세(世)이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로 차례로 연결하여 따지는 것이 대(代)이다.

①부자(父子) 간은 세로는 2세이나 대로는 1대이다.

②각각 항렬(行列)이 다른 일가가 한자리에 있을 때 12세조 할아버지의 시제를 모실 경우, 12세조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12대조라고 하면 틀린다.

③선대(先代)

본래 선대는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보첩에 있어서 선대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며, 선계는 잘못된 것이다.

7)호칭방법(呼稱方法)

생존한 웃어른의 이름자를 말할 때에는 함자라 부르며, 작고한 분에 대해서는 휘자(諱字)라 부른다. 이름자를 부를 때는 글자 사이에 '字' 자를 넣어서 부른다. 씨(氏) : 동료나 아랫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

선생(先生) : 성, 또는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른다.

공(公) : 남자의 성, 또는 아호 밑에 붙여서 부른다.

옹(翁) : 남자 노인의 성, 또는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르는 말인데 주로 돌아가신 분에게 사용한다.

장(丈) : 남자의 직함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8) 본관(本貫)

본관은 관향(貫鄉), 또는 관적(貫籍)이라고도 하는데 시조의 출신지나 시조의 정착 세거지(定着世居地)를 말한다. 각 성씨의 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원을 살펴보면 국가에 공훈이 있을 경우 〇〇君, 〇〇伯에 봉해 졌으므로, 봉군(封君) 받는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이 있었다.

이는 가문에서는 시조로부터 여러 대를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도 있는데 동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관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9)사성과 사관(賜姓, 賜貫)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시부족 사회인 기로는 6촌의 씨족으로 구성되었고, 신라 3대 유리왕 9년(세기32)에 이르러 6촌에 각각 孫, 李, 崔, 鄭, 裴, 薛씨 등 6성을 사성했다고 되어있다.

10)항렬과 항렬자(行列과 行列字)

항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계통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이는 문중의 율법이다. 항렬자는 각 가문마다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①음양오행설에 따라 金水木火土의 글자를 선정하여 순환시켜 나가는 것으로 우리도 이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 70세까지 항렬자가 정해져 있다.

②甲, 乙, 丙, 丁의 십간(十干)의 순으로 쓰는 것.

③子丑寅卯 십이지(十二支) 순에 의하여 쓰는 것.

④숫자적으로 一, 二, 三, 四를 포함해서 쓰는 것.

11)화수(花樹)

화수라는 말은 가계를 꽃나무에 비교하여 한 성씨를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무뿌리는 근원으로서 조상을 나타내고, 여러 갈래의 가지는 분파, 또는 지손(枝孫)을 말하며 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뜻한다.

12)생, 졸(生, 卒)

사람의 출생과 사망으로 족보에서는 사망 년 월 일과 간지(干支)로 표기한다.

13)함자(衍字)와 휘자(諱字)

현재 사람의 이름은 호적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아명(兒名), 관례(冠禮)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 이고 다음에는 족보에 기재하는 항명(行名)을 사용했다.

14)문중의 용어(門中 用語)

종가(宗家), 종친(宗親), 종중(宗中), 문장(門長), 유사(有司), 문회(門會), 대종약소(大宗約所), 종중재산(宗中財産), 시향(時享), 기제(忌祭), 사당(祠堂) 등 여러 가지가 있다.

①기제(忌祭)

기제는 5대 이하 부모로부터 고조부모의 조상에게 망명일(亡命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근래에는 제례 간소화에 따라 함동으로 시향(時享, 時祭, 時祀)에 기제(忌祭)를 모시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에는 조부모까지만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사당(祠堂)

사당은 신주(神主)를 모시는 집으로서, 서기1354년 고려 공민왕3년 가묘(家廟)를 제정하는 령(令)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각 가정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고려말 조준(趙浚)은 각 가정마다 신사(神祠)를 두고 집을 보호하였다하여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각 가정에 사당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조선시대 이계신은 고려충신 정몽주에 의하여 사당을 짓고 조상을 종사하였음을 주장한바 있으나 그 확실성과 시초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조선 중종 때 조광조 등이 가묘를 장려한 후 많은 인사들이 사당을 지어 대중화하여 일반 서민까지도 확대되었으나 일제침략 이후 철폐되어 지금은 사당을 모시는 집이 없으며, 오늘에 와서는 종친간의 사당이 존재한다.

③시향(時享)

시향은 시제와 공통된 말로서 문중의 큰 제사이다. 매년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기도 하며,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산소, 또는 재실(齋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시사(時祀)라고도 하는데 제사는 일정한 의식에 따르게 된다.

④종중(宗中)

동족이 일 부락, 또는 한 계열을 형성하여 집단생활을 할 경우, 동족 간에는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일족의 단장이 조직된다. 이 조직 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종규에 의하여 동족의 단결과 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움직여진다.

⑤종가(宗家)

종중에는 반드시 종손이 있다. 종손은 부락, 또는 동족 간에 있어서 최존선조(最尊先祖)의 가독상속자(家督相續者)이며, 가묘를 가지고 제사를 주재하는데, 종손의 집을 종가라 한다.

⑥문장(門長)

종중에는 종손 외에 종장, 또는 문장이 있다. 문장은 일문(一門)의 장자로서 대표자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종중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시와 지배를 받아야 하는 최고의 권위자다. 문장의 선임은 각 종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항렬이 가장 높고 대수가 종조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⑦유사(有司)

유사는 문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유사의 선임은 종친들이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문장이 지명하기도 한다.

명씨대중회 정기총회 연기 공지!

2013년 정기총회는 7월 13일(토) 신축건물 준공식과 함께 열립니다

기부공자(寄附孔子) 명위진 대중회장

명씨대중회 감사 겸 청년회장 명인식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부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있다. 원래 기부(寄附)란 용어는 법률상으로는 출연이란 의미로 쓰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의 행위로 통하고, 종교적으로는 보시란 의미로 쓰여 조건도 대가도 없이 베풀고 회향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헌혈, 헌신, 무료시술, 무료변론, 무료급식, 자원봉사 등 그 베풀어지는 형태와 방식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다양하다.

혈통과 상속제도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기부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어 미국인은 평생 번 돈을 후손에게 상속하지 않고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던가, 기업인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부동산경기 회복에 기여를 한다던가, 순대국 장사로 평생 번 돈을 모교에 음악당을 지어 기증한다던가 하는 등 아름다운 기부사례가 늘고 있어 그 때마다 우리는 진한 감동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기부는 익명으로 행해질 때 그 충격이 더 크다. 자선냄비에 든 1억원

짜리 익명 수표, 도산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나타난 익명의 5억 후원, 장기 암투병으로 풍비박산난 가정으로 배달된 1억의 익명 수술비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환호하게 한다.

우리 곁에 있는 명씨대중회 명위진 회장님이 그런 분이시다. 명씨대중회 대하장학재단 40여억 원 출연, 파주사당 신축건물 건축비 6억 6천만 원, 청양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거금 쾌척, 청양중고등학교 장학기금 출연, 서울아산중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후원, 청양지역사회 각종행사 및 발전기금 지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저 묵묵히 우리사회와 우리 명씨대중회, 그리고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익명의 기부를 몸소 실천하는 분! 우리는 그분을 무어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그분을 기부를 통하여 성인과 같은 큰 뜻을 펼친다는 뜻으로 감히 기부공자(寄附孔子)라 불러 영원히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의를 표한다.



명씨 며느리, 임금화가 명위진 회장님께 드리는 글

20세손 명위진 대중회 회장.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청계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을 떨치기 위해 젊은 시절 서울로 왔다. 신뢰를 중시하며 사업으로 성공한 지금,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종사를 위해 쓰고 있다.

중국에서 시조 황제의릉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달려갔고, 지역사당은 물론 파주 사당을 짓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최근 수십억을 대하장학회에 쾌척하고, 파주 사당에 요모조모 쓸 수 있는 신축건물을 기꺼이 기증한다하니 이 은혜를 어찌 잊을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종친들에게 놀라움을 안긴다. 그분이 아니면 예종 제사나, 탄생지기념관 방문이 가능했을까?

많은 돈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고도 풍돈조차 쓸 줄 모르는 졸부 투성이인 세상, 대기업을 이룬 이들조차 심심찮게 좋지 않은 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세상에 이처럼 큰 사랑을 소리없이 실천하고 계신 고마운 분이 우리 종친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이고 영광이다.

이제 명씨 아이들은 그분이 만든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분이 지은 사당과 신축건물을 찾아 조상어르신들을 뵙고하며 명씨를 이야기할 것이다. 명씨신문은 자신들의 성공이야기를 종친들에게 배달함으로써 다른 종친들에게 희망의 힘을 만들 것이다. 이 순환의 고리들을 대중회 중점사업화한 안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돕기, 극빈자돕기 등으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하고 있다.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만인의 표상이다.

명씨대중회를 이끌어 온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대중회발전을 위해 일해 온 여러 임원분들도 자랑스럽고 보기 좋다. 이렇게 뽕뽕 뽕치도록 만든 것도 혹은 그분이 아닐까 싶다.

그분에게서 과학이 나오고, 미래를 통찰하는 힘이 나온다. 종친들을 끌어 모으는 응집력,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마음을 만드는 마력이 나오니 놀랍다.

우리의 기록이며 글 마당인 '명씨대중보', 그리고 '타임캡슐'을 만들어 두겠다는 생각도 그렇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린 신문을 무엇보다 중요한 명씨들의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요즘 더욱 명씨 며느리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의 남편은 물론 여러 명씨 종친들이여, 명위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명씨를 빛나게 하는 노력을 나누어 짊어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것을 믿는다.

아울러 우리의 큰 힘, 명위진 회장님이 내내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명씨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24세 명재근의 처
청양 임금화 명예기자
im5322@hanmail.net



시조 명옥진 황제의 기마상



중국 호북성 수주시 수현 유림진에 소재한 황제 탄생지 기념관 뜰에는 2012년 2월 29일 기념관 개관행사에 맞춰 세운 기마상이 있다.

이 기마상은 시조께서 대하국의 황제이셨을 당시의 모습을 현궁지비를 토대로 형상화한 황제의 상징물이다. 현궁지비는 "시조 황제께서는 사람됨이 영민하고 무예를 갖추셨으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조 황제의 기마상의 형태는 명노승 당시 대중회장과 명광주 상임이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개의 기마상 형태를 참고하여 중국 측에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여러 차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후 흙으로 미니어처를 만들어 또 다시 형태조정을 한 후 최종 안을 결정하고 실 제작에 착수했다.

기마상은 흰색의 고급 대리석으로 조각되었으며, 크기는 기단을 제외하고 3.8m나 된다.



종친 소식

명위진 회장 73세 생신

4월 23일(음력 3월14일), 73세 생신을 맞은 명위진 대중회장이 예고 없이 화환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온 옛 (주)대하공무 직원들과 함께 압구정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며 조촐한 생일축하 파티. 이를 지켜본 대중회 임원들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반증한 것이라고 뒷 담화.

명광길 상임부회장 차남 결혼

대중회 명광길 상임부회장의 차남 재호군. 4월 28일(일) 오전 12시, The-K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에서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

명봉식 고문 뇌경색 수술

4월 19일, 명봉식 고문이 뇌경색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후 퇴원. 수술경과는 양호. 남다른 열정으로 대중회 발전에 공헌해온 경모사 관리위원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

〈종친소식을 전하시려면, 짧은 글을 종친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명씨대중회 산하 동호회 소개 - 골프동호회 '서촉회'

명씨대중회 산하에는 3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청년들의 모임인 청명회(회장:명인식), 등산동호인들의 모임인 명대산악회(회장:명영식), 그리고 동호회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골프애호가들의 모임인 서촉회(회장:명순식 대하장학회 사무총장)가 바로 그것이다.

종친 골프모임인 서촉회는 매월 4째 주 월요일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기흥소재 화성 상록CC에서 4개팀으로 편성하여 정기적인 골프모임을 하고 있다.

서촉회는 15년 전 명영남 예비역 공군 장군께서 사장으로 있었던 수원CC를 주모임 장소로 하였다. 명영남 종친이 서촉회의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대중회 명순식 상임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타 종친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명씨종친회만의 깊은 역사를 가진 동호회이다.

현재 회원은 총 24명, 6팀으로 회원은 다음과 같다.

명위진 대중회장, 명노승 전 법무차관, 명인세 전 바르셀로나총영사, 명영남 예

비역 공군장군, 명동성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명호근 전 쌍용양회 부회장, 명재환 국민은행 창동 아이파크지점장, 명봉식 대영건설회장, 명동현 전 사장, 명광길 전사장, 명제길 전 대아공무 전무, 명노문 대중회 부회장, 명노준 대중회 사무국장, 명순식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영준 태흥기전 사장, 명운식 체육학박사 겸 마이더스 체육관 대표, 명노형 전 초등학교 교사, 명노웅 회사 임원, 명철주 대아공무 부사장, 명현준 이수개발 대표, 명의정 해군제독, 명충식 예비역 육군 장군, 여성회원 이정희(명위진 대중회장 부인), 한명숙(명노문 대중회 부회장 부인), 안병남(명순식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부인), 김성은(명운식 체육학박사 부인) 등이다.

골프모임 참여 등 서촉회에 관한 문의로는 명순식 서촉회 회장(전화 010-2008-8151), 명영준(011-746-9335)총무에게 연락하면 된다.

〈명씨대중보 편집국〉

명씨대중보 관련문의 및 구독신청 / 명씨타임캡슐 관련 문의 및 정보제공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광길 010-6220-8065 이메일: mkk2634@naver.com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adpromyung@naver.com
- 대중회 사무국장 명노준 010-2555-1760 이메일: mnj4395@hanmail.net